

시민 안전 수호, 아버지와 아들이 '한마음'

제58주년 소방의 날 맞아

제58주년을 맞이하는 소방의 날은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1월 9일에 그 날을 기리고 있다.

익산소방서도 소방대원들의 노고와 감사를 치하하고,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자 매년 소방의 날을 주요 행사로써 추진하고 있다. 올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예정과 시뉘 다른 분위기를 보이니 소방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본받고자 하는 소방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 속에서 특히, 익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불철주야(不徹晝夜) 노력하는 부자(父子) 소방관이 있어 이 자리에서 소개해볼까 한다. 올 해로 25년차 베테랑 소방관인 서상희(52) 소방위와 1년차 새내기 소방관 소방사 서한빛(26) 대원이 그 주인공이다.



서한빛(사진 왼쪽), 서상희(오른쪽) 소방대원이 소방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이 너무 역동적이고 멋있어 보였다.

그후 군복무 중 현재 남중119안전센터 1팀장으로 재직 중인 서형근 소방위(작은아버지)의 권유로 소방관의 꿈을 꾸게 돼 지금의 이르렀다

-서한빛 :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아버지를 본적이 있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불을 끄는 아버지 모습에서 '진짜 영웅 같다'는 뿌듯함을 느껴 소방관을 꿈꾸기도 했다.

처음 아버지께서 소방공무원을 권유하셨을 때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관창을 잡고 현장을 누빈 영웅 같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소방관의 꿈을 키워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격려와 든든히 뒤를 지켜준 가족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소방관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Q.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서상희 :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서비스 정신이 어느 분야보다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출동 시 주변에서 소방관이 최고다, 고생한다는 말을 들을 때, 수혜자에게서 고마운 마음에 불이라도 건내시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웬지 모르게 뿌듯한 적이 많다. 지금도 소방공무원으로 25여 년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항상 자랑스럽다.

-서한빛 :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25년차 베테랑' 서상희 소방위

현장에 출동할때 주변에서 "고생한다" 말 들을때 보람 느껴 시민 생명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체력'

화재·구조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고맙다", "덕분에 든든하다"는 말을 해주셨을 때,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힘이 되어 드렸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런 존경받는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자랑스럽다.

Q.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서상희 : 2012년 군산소방서 근무 중 늘 같이 훈련하고 운동하며 시민의 안전지킴이였던 동료 구조대원이 순직하셨을 때 처음으로 소방관으로서 잠시 흔들린 적이 있었다.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담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게 우리 임무지만 동료동료를 같이한 동료가 순직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힘들지 않을 수 없다.

'멋지고 당찬 소방관' 서한빛 소방사

내가 힘이 되어 드릴때 뿌듯해 첫 화재출동, 가장 기억에 남아 아버지를 본받아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소방관 되고과

-서한빛 : 처음 발령을 받고 난 뒤 첫 화재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늦은 새벽 주택 화재였다. 모두들 꿀잠에 드는 새벽이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그럴 여유가 없다.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해 관창을 잡고 불을 끄는 순간 문득 불의 거대함과 뜨거움에 잠시 놀라기도 했다.

또 관창을 잡은 어렸을 적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나도 아버지와 같은 존경받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집념 하나로 관창을 끝까지 잡고 불을 끈적이 있었다. 정말 온 몸이 땀에 젖고 녹초가 되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이 들기도 했던 순간이었다.

Q. 가족 소방관, 장·단점이 모두 있을 것 같

은데요?

-서상희 : 가족끼리 소통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무 환경, 화재 현장 활동 등 소방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다.

반면 이야기 주제가 소방으로 국한되다 보니 회사에 다니는 다른 가족은 소외되기도 한다.

-서한빛 : 소방관으로서의 현장활동은 경험이 크게 좌우한다. 다양한 유형의 현장을 접하지 못해 아직 현장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한데 가족들의 조언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방관의 업무를 경험많은 아버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현장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다보니 잘못된 점이나 나쁜 습관 등의 나쁜 이미지가 동료들에게 부각되어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Q. 전국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서상희 : 소방관들은 지역은 다르지만 '소방'이라는 운명 공동체다. 다른 지역에서 소방 활동으로 인한 직원의 안전사고나 대형화재에 따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를 결코 남의 일로 받아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의 일보다는 자기 일로 인식하고 이른 시간 안에 함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한빛 : 소방관이라고 해서 항상 강하고 멋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슬프면 눈물로 흘리고 웃기면 웃으면 된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멀쩡해 보여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이 많다. 정신 건강은 신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괜찮다"며 참지 말고 긍정 심리 훈련과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회복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웃기만 해도 짧은 인생이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서상희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과 자신의 건강과 체력이라고 생각한다. 소방관들이 일반인보다 평균수명이 짧은 것은 잦은 출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리듬의 불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매일 같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체력도 길러 우리를 영웅이라 부르는 시민들과 내 가족 내자신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서한빛 : 아버지를 본받아 언제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 또,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주는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헤드리지 못한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크게 불러드리고 싶다.

익산=장양원기자

남원시

귀농·귀촌 멘토시티

남원·지리산에서 시작하세요